

삼성전자 “비메모리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라”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상하이에 단독 부스를 차리면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됐던 사업 구조를 바꾸고 비메모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6월 27~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MWC 상하이 2018'에서 시스템LSI 사업부의 단독 부스를 꾸렸다.

MWC 상하이는 600여 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박람회로 올해 7회째를 맞는다.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가 참가한 것은 두 번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국 시스템LSI사업부 마케팅팀 상무 등 실무진들이 부스를 방문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이미지센서 신기술 아이소셀 플러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7 시리즈, 스마트 스피커 등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소셀 플러스는 기존 아이소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기술이다. 메탈 구조를 신소재로 대체해 광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색 재현성을 높였다. 카메라 감도를 최대 15%까지 향상시켜 어두운 곳에서도 더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프리미엄급 모바일 AP 엑시노스7 9610과 갤럭시S9 스마트폰 시리즈에 탑재된 엑시노스 9810이 전시됐다. 글로벌 소프트

시스템LSI 사업부 MWC 상하이에

단독 부스 차리고 시장 공략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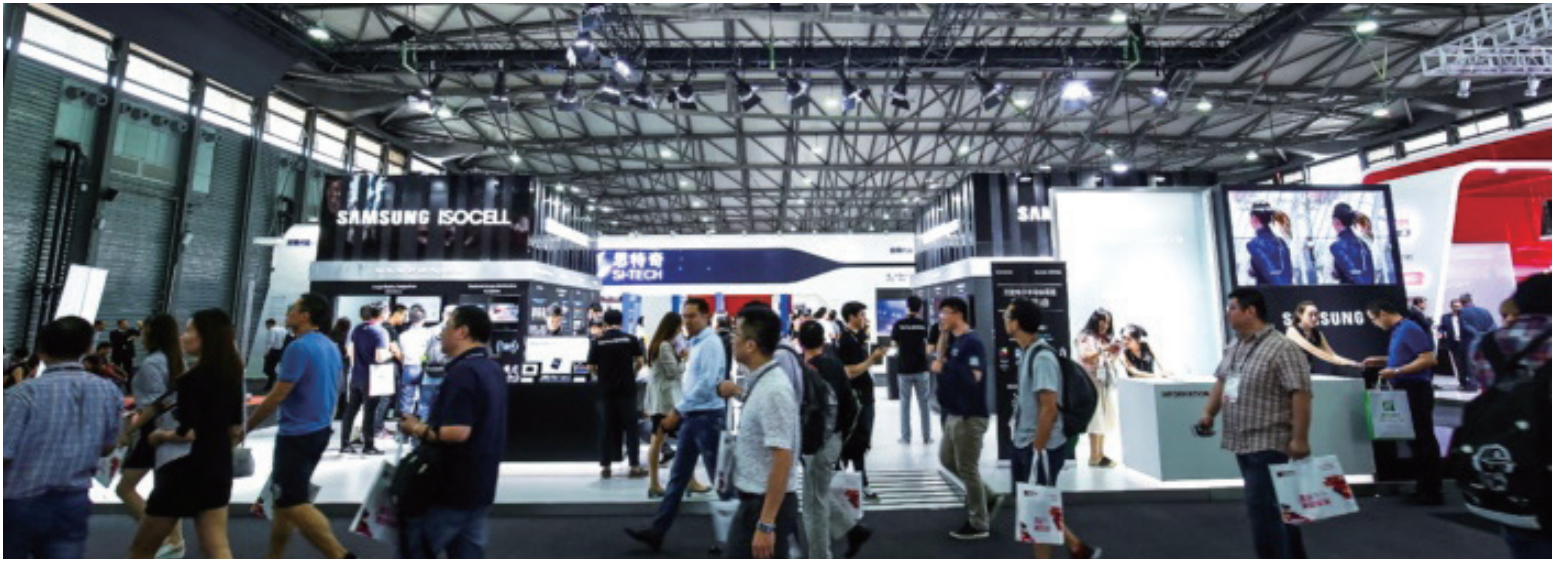
신기술 아이소셀 플러스 등 소개

우수 스마트 스피커 기술력 뽐내

웨어 업체들과 이미지 센서를 포함해 삼성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스피커를 선보이며 우수한 기술력을 뽐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비메모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삼성전자의 반도체 포트폴리오는 메모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0% 안팎을 차지했다. 지난해 29조원을 넘는 반도체 투자비 가운데 70%가 메모리 반도체였다.

이처럼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MWC 상하이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

바꾸고자 삼성전자는 작년 5월 비메모리 부문 사업체계를 정비했다. 시스템LSI 사업부를 팹리스(설계)와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로 분리했다. 시스템온칩(SoC) 설계와 센서 제품 개발, 디스플레이구동집(DDI) 설계 등 핵심 인력도 대대적으로 충원했다.

아울러 웰컴 출신의 강인엽 사장을 승진시켜 시스템LSI 사업부를 사장급 조직으로 격상시켰다. 강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영입한 인사로 알려졌다. 최근 이 부회장의 중국 출장에도 동행했다.

오소영 기자 osy@

삼성·애플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불꽃

갤노트9·아이폰 모델 3종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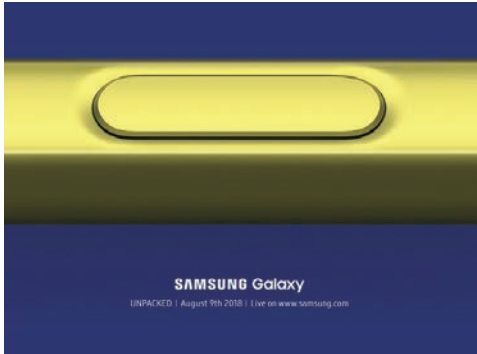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격돌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을, 애플은 아이폰 모델 3종을 출시하는 가운데 가격 정책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 가격을 역대 최고가로 평가받던 갤럭시노트8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올리며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운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노트9을 선보일 계획이다. 갤럭시노트9 출시가 임박하면서 가격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IT매체 시넷(CNet) 등 주요 외신은 전작인 갤럭시노트8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갤럭시노트8은 64GB 기준으로 미국에서 930~960달러였다. 한국 가격으로는 109만 4500원으로 노트 시리즈 중 역대 최고가였다.

갤럭시노트9 가격이 전작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듀얼카



갤럭시노트9 언팩 행사 초청장.

메라의 성능 향상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9에서 후면 듀얼 카메라에 조리개까지 더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전작보다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도록 한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전면 카메라에도 적용돼 카메라 성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용량 제품 출시설도 고가 책정에 힘을 싣는다. 갤럭시노트9은 6~8GB 램에 64~128~256GB 내장 메모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 출시되는 모델에서는 PC에 맞먹는 512GB 메모리가 적용되면서 고가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 예상된다.

LG ID사업부, 권순황이 이끈다

ID사업부장 권 사장이 겸임

권순황 LG전자 B2B사업본부장(사장)이 구광모 LG그룹 신임 회장의 선임으로 사령탑이 된 ID사업부를 이끈다. 권 사장은 과거 ID사업부를 2년간 맡았던 만큼 사업을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구광모 LG전자 ID사업부장(상무)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창업주인 구인회 전 회장과 구자경 명예회장, 고 구분무 전 회장에 이어 4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구 회장이 ID사업부장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빈 자리를 “권순황 사장이 겸임한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ID사업부장을 맡았었다.

ID사업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성장 분야인 상용용 디스플레이(사이니지)를 주력으로 하는 부서다. 당초 대표이사 직속 사업 부문이었다가 작년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B2B사업 부문과 합쳐졌다. 이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B2B사업본부로 격상됐다.

구 회장은 작년 말부터 ID사업부장을 맡아왔다. LG그룹의 후계자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다.

구 회장은 ID사업부에 상당한 애착을 보여왔다. 지난 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사이니지 전시회에 참석해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 등 신제품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구 회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권 사장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권 사장은 LG전자의 미래를 짊어질 B2B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ID사업부의 성장 동력을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ID사업은 사이니지의 높은 성장세로 B2B의 핵심으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오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7억4000만달러에서 2025년 316억200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 7.28%나 성장하는 셈이다. 이에 업계 간 경쟁도 치열하다. 삼성전자는 올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사이니지 더 월 프로페셔널을 선보이며 초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전자는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와 오픈 프레임 올레드 사이니지를 내세우고 있다.



LG전자 모델이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를 소개하고 있다.



www.newsis.com

NEWS IS

뉴스시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스시스**는
300여명의 국내 기자와 AP·로이터·신화통신 등과 함께
지구촌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뉴스시의
10년, 100년을 위한
독자와의 약속

늘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 언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민안 언론**
약자의 편에 서는 **따뜻한 언론**
비리에 눈감지 않는 **강한 언론**
지구촌을 선도하는 **글로벌 언론**

공/관/언/론 뉴스시스
NEWSIS